

여수·순천·광양

“여수를 해양스포츠 메카로”

범선축제 2회 최고축제 격상키로

‘국제 해양관광도시’ 선포식도

여수시가 해양스포츠와 해양문화 거점도시로 거듭난다.

여수시는 7일 막을 내린 국제범선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대대적인 해양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시는 기존 소호요트장의 계류장을 확장하는 등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여수연안의 이점을 살려 국제범선축제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최고의 범선 축제로 발전시킬 구상이다.

특히 범선축제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역사와 문화, 해양이 조화된 전국민의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년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밀 방침이다.

여수시는 해양을 주제로 한 국제 영화제 개최도 추진한다. 내년 5월 개최 예정인 여수 국제영화제는 국내외 영화제와 차별화시키기 위해 세계 해전이나 바다를 주제로 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또 신항지구와 오동도, 자산공원 일대에 해양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진남관을 중심으로 한 이순신 관광 조성 및 워터 프러트(Water Front)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여수시는 7일 러시아 범선 파라다호를 배경으로 ‘국제해양관광도시’ 선포식을 갖고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국제 해양관광도시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연합뉴스

거북선을 중심으로 한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힘을 모아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중해형 국제 해양관광도시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여수·광양·남해·하동 주민 대상 20년간 건강 역학조사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오염 노출 수준 등 조사

광양시와 여수시 등 광양만권 산단 주변지역 4개 시·군 주민들에 대한 건강역학조사가 올해부터 20년간 실시된다.

광양만권 산단 주변지역 주민 건강 조사를 맡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4일 여수·광양시와 남해·하동군 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만권 주민건강 보호사업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수

준 및 생체지표 모니터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주민동원 등 행정적 지원 및 자료·정보 제공에 협조하고 환경과학원이 조사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을 조달하며 필요요지 자체가 지원하게 된다. 또 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 제공시 상대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광양지역에 대한 주민 건강 역학 조사를 실시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부터는 기존 광양(1천명)을 포함해 여수(1천명), 남해(500명), 하동(500명) 등 광양만권 국가산단 주변지역 4개 시·군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환경오염 노출지역과 비오염지역을 수시로 바꾸는 방식으로 앞으로 20년간 진행되며 국립환경과학원은 1년 마다 그 결과를 공개한다.

/광양=김충호기자 chkim@



여수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 등록문화재 예고

여수 낭도리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 850m가 최근 등록문화재로 예고됐다.

사도마을과 추도마을 돌담(사선 오른쪽)은 학술 가치가 높고 경관면에서도 보존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도마을은 임진왜란때 성주 배씨가 정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지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지 및 퇴적층’도 인접해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순천, 석현동 군부대 용지 매입 ‘시민복합 교육·문화센터’ 조성

81억에 국방부와 계약 체결

순천시가 도심 군부대 용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순천시는 시민복합 교육·문화센터가 들어설 석현동 군부대용지 2만 6천504㎡(8천66평)를 81억8천800만원에 매입키로 최근 국방부와 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이 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국방부와 매입 방안을 협의해 온 순천시는 8억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5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지급한다.

시는 이 부지에 400여억원을 투입해 오는 2009년까지 영어타운과 어린이도서관, 여성문화회관, 공원이 들어서는 ‘시민 복합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복합 교육·문화 센터가 들어설 경우 교육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는 물론 구도심 활성화에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계획을 수립, 국방부와 매입 방안을 협의해 온 순천시는 8억5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5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지급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장수풍뎠이 농가 새 소득원 각광

순천 3곳서 6만마리 사육

지난해 1억5천만원 소득

일명 ‘투구벌레’로 불리는 장수풍뎠이(사진)가 새로운 농촌 소득원으로 각광 받고 있다.

현재 순천지역에는 3개의 장수풍뎠이 곤충사육시설에서 6만마리의 장수풍뎠이가 사육되고 있다.

장수풍뎠이는 어린이용 애완 곤충으로 인기를 끌면서 올해는 유충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다.

장수풍뎠이는 수컷만 뿔이 있고 암컷은 뿔이 없고 크기도 수컷에 비해 작으며 평균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유충의 경우 마리당 500~700원, 성충은 3~4천원에 주요 쇼펄 몰과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데 지난해 3개 농가에서 1억5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특히 이들 농가는 지역 표고생산농가의 버



린 표고목(참나무)과 삼나무가치가 없는 과일을 장수풍뎠이 먹이로 재활용해 생산비를 낮추고 있다.

올해는 연간 30만마리의 애벌레 사육으로 3억원 이상의 소득이 예상된다.

송계종(45·순천시 발랑면)씨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틈새 소득작목으로 관심을 갖겠다”며 “앞으로 장수풍뎠이 뿐만 아니라 사슴벌레, 꽃뚜기 등도 사육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여수시, ‘비문해자’ 없는 도시 만든다

2012년까지 한글교실 9곳 운영

여수시가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비문해자(非文解者)’ 없는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지난 2005년 말 기준, 여수지역 20세 이상 인구 20만2천명 중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시민은 전체의 10%에 가까운 1만9천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 대비 5.9%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여수지역에 도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교육 혜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이달부터 오는 2012년까지 한글 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9개 평생교육시설에서 한글 교실을 운영한다.

또 주민자치센터와 마을회관, 노인당 등 24개소에 한글 강사 30명을 위촉, 한글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한편 학계에서는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는 ‘문맹(文盲)’이라는 표현 대신 글을 이해하지 못하다는 뜻의 ‘비문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여수엑스포 유치 기원 시립국악단, 정기공연

여수시립국악단의 열네번째 정기공연이 ‘남도민요와 각도 민요대잔치’를 테마로 오는 10일 오후 7시 여수시 민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공연에서는 ‘2012여수엑스포를 주제로 감칠맛 나는 남도민요와 서도소리, 관현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한란 무대’가 펼쳐진다.

관현악 산조와 산조춤으로 공연의 서막을 열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소재로 국악관현악 ‘태몽’이 선을 보인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Lists various real estate listings with prices and locations.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무등공인중개사. 건물투자, 땅투자(상부지구), 모텔매매, 상가투자(상부지구), 임야(농장), 시무실매매(상부지구), 공장·창고 및 기타, 기타투자.

정우부동산. 건물구매, 토지매매, 임야매매, 생산농지.

첨단월세공인중개사. 임대, 첨단중심 상업매매, 첨단 원룸 건물구매, 첨단 인근 농지 구매매.

국민공인중개사. 건물, 땅, 공공구매, 빌딩임대.

알파공인중개사. 상업용건물, 토지매매, 양산동 상업용지.

宗경하는 동료·선배 중개사님들 중개업에 종사하시는 모든분들 최고의 A급 상기를 찾고 계신분들께 아주 특별한 제안을 드립니다. BM公認仲介士事務所.